

전북-독일, 바이오 공학 분야 협력 기대

프라운호퍼 IBMT 헤이코 짐머만 연구소장 등 전북 방문... 도내 대학·연구기관과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 등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와 독일의 프라운호퍼 IBMT가 생명 공학 및 의생명 공학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7일 독일 프라운호퍼 IBMT 짐머만 헤이코 연구소장과 피터 하우프트만 이사가 김관영 도지사를 예방하고 생명 공학의 혁신 기술 상용화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김관영 도지사가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 개소 등 공공외교활동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협력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프라운호퍼연구회는 지난 1949년에 설립돼 독일 전역에 76개 연구소를 두고 주요 연구분야로는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기술, 수소, 디지털 분야 등이며 연구회 소속 프라운호퍼 IBMT는 독일 자르브뤼켄에 위치한 생명공학 연구소이다.

특히 유도 민능 줄기세포를 활용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한 독일 프라운호퍼 IBMT 짐머만 헤이코 연구소장과 피터 하우프트만 이사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용곤 전북대병원교수 등과 함께 생명 공학의 혁신 기술 상용화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면담을 가지고 있다.

재생 의학 및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스마트 웨어러블 및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로 헬스케어 솔루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연구기관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프라운호퍼 IBMT는 협력방안으로 연구소가 보유한 글로벌 선진 바이오기술을 도내 기

업과 기술이전 협력추진, 도내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독일 프라운호퍼 IBMT 짐머만 헤이코 원장 일행은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학교 중재적 메가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와 반도체 공동연구소, 익산시를 방문해 전북의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을 살피고, 바이오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연구소 면담을 통해 공동협력체계 모색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9월 독일에서 문을 연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BIO기술협력센터를 거점으로 전북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유럽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그린바이오 기반으로 레드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프라운호퍼 IBMT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북본부(회장 손범수, 회원 2,500명)를 비롯한 도내 1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장단 등 이 17일 전북도청에서 제2 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 강령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최적지는 남원”

영호남 경찰직장협의회, 남원 유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북본부(회장 손범수, 회원 2,500명)를 비롯한 도내 1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장단과 신임 경찰관 등 50여 명이 17일 전북도청에서 제2 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북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청에 남원을 학교 설립 위치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남원시가 제2 중앙경찰학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전북 경찰직장협의회는 남원시의 입지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신정 부지가 국유지여서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즉시 개발이 가능한 점을 남원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인구 감소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제2 중앙경찰학교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충남 아산시에는 이미 경찰대

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 다수의 경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남원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호남권인 전라남도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직장협의회는 물론이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남원 유치에 힘을 보탰다.

손범수 전북도 경찰직장협의회장은 “현재 추중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영호남 여러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남원에 제2 중앙경찰학교가 입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남원은 6.25 전쟁 당시 전북경찰국이 빨치산 토벌 작전을 펼쳤던 역사적인 장소로, 미래 치안을 책임질 신임 경찰관들이 사명감을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곳이다”라고 유치 필요성을 표명했다. /이만호 기자

재외 동포경제인들,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큰 기대’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북 기업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며, 전북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재외 동포경제인들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우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외장은 “이번 대회는 전북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대회는 전북 기업들이 글로벌 바이어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시장

김관영 지사 “전북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 제공” 재외동포청 “한인 경제인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

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관 출범 이후 첫 대회를 앞둔 재외동포청은 이번 자리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덕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한인 경제의 주역이 4세대, 5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세대의 한인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이슈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 아프리카·중동한인회 총연합회 김점배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과 아프리카의 농업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전북은 농업이 강한 지역인 데 반해 아프리카는 아직 농업 개발이 덜 되어 있는 상태”라며 “전북과 아프리카가 농업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전북의 농업 기술과 노하우를 아프리카에 적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길을 모색해 나가면 전북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이번 대회에서 전북 기업들과 미주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고향 전북이 세계적 자치도로 도약하기를 희망했다.

윤희 아시아한인·한상총연합회장은 전북자치도와 전주가 대회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제주와의 유치전 끝에 전북 안방에서의 개최를 이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대회가 전북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대회 기간 천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전북을 찾는다. 역량이 있는 전북의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 내년 사망사업 예산 270억 확보... 산사태 예방 총력

사망땀 예산 21% 증액...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사망사업 예산으로 270억원(국비 189억 원, 지방비 81억원)을 확보하며, 산사태 취약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 증액된 금액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사망땀

의 재해 방지 효과가 확인된 결과다. 지난해 여름, 익산, 군산, 원주 지역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망땀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을 막아 농경지와 주택 피해를 예방

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는 내년도 사망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내년도 사망사업은 사망땀 65개소, 계류보전 34km, 산지사방 10ha, 산림유역관리 2개소 등 도내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5개년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 ‘속도’

2025~2029년 제2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비전 설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정책 비전과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동구, 권요안 도의원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전문가,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고회에서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사회적경제 조직 자생력 강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대

응력 제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전북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라 진행되며, 2024년 12월 까지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정부 정책기조가 급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장기 관점에서의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민과 기업, 지원조직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비전제시와 세부 계획수립으로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